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오늘 오전에 세미나 "미 대선과 한국 기업들 위한 시시점"이 있었습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올해 연준 금리 인하에 의구심 든다
- WSJ: 컨퍼런스 보드, "앞으로도 미 노동시장 견고하다"
- WSJ: JP 모건 CEO, "미국은 금리 급등에 직면할 수도"
- Bloomberg:미 소비자들, "향후 인플레이션 안정... 가계 부채 우려 커"

[미국 금융]

- WSJ: 금리 인하 지연으로 달러 강세 오래 갈수 있어

[미국 생활]

- CNN Business: 연방의회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발의

[미중 경제]

- CNBC: 옐런,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에도 관세 부과 예외 없다"
- Bloomberg: 골드만삭스, "트럼프의 새 관세안 미 성장 둔화시킨다"

[인공지능]

- CNBC: JP모건 회장, "AI가 인쇄기, 전기, 컴퓨터만큼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테슬라 주가 급등 ... 머스크의 로보택시 과대광고 탓
- Bloomberg: 타겟, 셀프 계산대에 카메라 추가하여 도난 방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Doubts Creep In About a Fed Rate Cut This Year

올해 연준 금리 인하에 의구심 든다

- 연준이 올해 여러 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월가의 예상 때문에 주요 주식의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거래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올해 전혀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주 금요일 강한 미경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자리 보고서 후에 더 많은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들어 고작해야 한두차례 금리 인하하는데 베팅하고 있다. 이는 연준 관리들의 3차례에 걸쳐 2.5%씩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최근 중간 예상치보다 금리 인하 횟수가 작은 것이다.
- 일부는 금리를 전혀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베팅하기 시작했다.

WSJ 기사

WSJ: U.S. Set for Job Gains Ahead, Conference Board Says 컨퍼런스 보드, “앞으로도 미 노동시장 견고하다”

- 컨퍼런스 보드의 미 고용 추세 지표가 3월에 112.84로 상승했다. 2월에는 하향 조정된 111.85였다. 고용 지표가 상승한 것이다.
- 이는 미 고용이 단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지표다. 지난 금요일 3월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에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또 다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번 조사 관계자는 관련 지표가 팬데믹 전보다 높은 수치이며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WSJ 기사

WSJ: Jamie Dimon Warns U.S. Might Face Interest-Rate Spike JP 모건 CEO, “미국은 금리 급등에 직면할 수도”

- JP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미국은 향후 수년간 8%까지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며 “기록적인 부채 지출과 지정학적인 어려움으로 인플레이와의 싸움이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 그는 오늘 월요일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엄청난 재정 지출, 청정 에너지를 위해 매년 필요한 수조달러, 세계의 재군사화, 글로벌 무역의 재조정 등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Inflation Expectations Stabilize, But Debt Concerns Pick Up 미 소비자들, “향후 인플레 안정... 가계 부채 우려 커”

- 3월 시점에서 미국인들이 보는 내년 미 인플레는 안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 뉴욕연방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3월에 미국인들의 향후 1년 인플레 중간 예상치는 3%대를 유지 할 것으로 바라봤다 3년 전망은 2.9%, 향후 5년은 2.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가계가 부채를 상환을 하지 못할 확률은 3월에 12.9%로 증가하여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았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Rate-Cut Delays Could Mean Dollar Stays Stronger For Longer**
금리 인하 지연으로 달러 강세 오래 갈수 있어

- 향후 견조한 경제 전망과 금리 인하가 지연될 것이라는 상황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가들은 말했다.
- 많은 분석가들과 펀드 매니저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올해 달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은 급격히 줄어드는 동시에 미 11월 대선과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SJ 기사

[미국 생활]**CNN Business: US lawmakers unveil a plan to give all Americans a right to online privacy**
연방의회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온라인 개인 정보 보호법 발의

- 영향력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양당 합의의 법안을 발의한다. 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디지털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기본권리를 갖고 또한 회사들이 그런 정보를 취득하고 공유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을 발의한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정보법인 유럽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와 유사한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에 미국인 개징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팔아버리는 상황이 개선될 것을 보인다.

CNN Business 기사

[미중 경제]**CNBC: Yellen says she won't rule out possible tariffs on China's green exports**
옐런,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에도 관세 부과 예외 없다”

- 월요일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이 중국의 녹색 에너지 수출에 관세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그녀는 CNBC와의 인터뷰 중 중국이 산업 인센티브에 대한 접근방식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시점에

서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모든 선택지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중국과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답변했다.

- 또한 그녀는 “우리는 단지 미래에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Bloomberg: Goldman Says Trump’s New China Tariff Plan Would Slow US Growth

골드만삭스, “트럼프의 새 관세안 미 성장 둔화시킨다”

- 트럼프 후보의 공약인 중국산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정책이 미 국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밝혔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이 1%씩 상승할 경우 미국의 성장은 0.15%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설사 트럼프가 감세 재원을 지출과 투자 확대에 사용한다고 해도 GDP는 최소 0.0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Bloomberg 기사

[인공지능]

CNBC: Jamie Dimon says AI may be as impactful on humanity as printing press, electricity and computers

JP모건 회장, “AI가 인쇄기, 전기, 컴퓨터만큼 인류에 영향을 미칠 것”

- JP 모건 체이스의 회장 Jamie Dimon이 AI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월요일 공개된 연례 서한의 첫 번째 주제로 AI를 선택했다. 지정학적 위험, 인수 및 규제 문제보다 앞서 다뤄진 것.
- 그는 “AI가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전체 효과나 속도, 나아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그 영향은 아마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주요 기술 발명만큼이나 혁신적일 것. 인쇄술, 증기 기관차,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을 떠올려봐라.”고 그는 덧붙였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Tesla Shares Jump as Investors Buy Into Musk’s Robotaxi Hype

테슬라 주가 급등 ... 머스크의 로보택시 과대광고 탓

- 테슬라의 주가는 분기별 인도량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지난주 S&P500 지수에서 올해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 머스크는 신제품 출시를 통해 흐름 전환을 시도했고(8월에 로보택시 출시 발표), 주가는 금요일 늦게 급등하여 월요일 오후 5.3% 상승했다.
- 이러한 시선을 사로잡는 이벤트(Splashy events)는 전통적인 광고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테슬라의 오랜 전략 중 하나이다. 머스크는 투자자의 시선을 미래로 돌리는 데 능숙하지만, 테슬라가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린다.
- “이는 암울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주의를 돌리려는 사례로 보인다”고 Vital Knowledge의 설립자 Adam Crisafulli는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arget Adds Cameras at Self-Checkout Stations to Deter Theft

타겟, 셀프 계산대에 카메라 추가하여 도난 방지

- 타겟이 셀프 계산대에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도입한다.
- 타겟은 셀프 계산대에 카메라를 사용하여 스캐너의 물품을 감지하는 새로운 기술을 추가한다. 해당 스캐너는 고객이 스캔 되지 않은 상품을 들고 갈 때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이다.
- ‘TruScan’이라 불리는 해당 기술은 올해 전체 매장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해당 스캐너는 반복적으로 상품을 스캔하지 않는 쇼핑객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선진국 식료품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전 이전 수준으로 내려와"

FT, OECD 2월 식료품 물가지수 인용 보도

선진국들의 식료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2022년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결과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OECD 최신 자료를 인용해 2월 산업화된 국가 38곳의 식료품 소비자물가 연간 상승률이 5.3%를 기록, 1월(6.2%)보다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2년 11월 고점 16.2%보다 크게 둔화한 것이며, 2021년 10월 이후 최저에 해당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